

9 일차

매일 매일 꾸준히!

하루는 짧지만 그 하루가 모이면
당신의 생각 그 이상의 것이 된다.

[1 ~ 5]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가)

인간(人間)을 써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
 니것도 보려 호고 저것도 드르려코
 바람도 혀려 호고 들도 마즈려코
 봄으란 언제 줍고 고기란 언제 낙고
 시비(柴扉)란 뉘 다드며 딘 곳츠란 뉘 쓸려노
 아츰이 낫브거니 나조히라 나올소나
 ㉠ 오늘리 부족(不足)거니 내일(來日)리라 유여(有餘)호라
 이 뵈히 안즈 보고 더 뵈히 거러 보니
 번로(煩勞)호 므음의 벅틸 일이 아조 업다
 쉴 스이 업거든 길히나 전호리아
 다만 호 청려장(靑藜杖)이 다 드디여 가노미라
 술리 닉어거니 벗지라 업술소나
 불늑며 툃이며 혀이며 이아며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벅야거니
 근심이라 이시며 시름이라 브터시라
 누으락 안즈락 구부락 저츠락
 을프락 프람하락 노혜로 노거니
 천지(天地)도 넓고 넓고 일월(日月)도 호가(閑暇)호다
 희황(羲皇)을 모을너니 니적이야 괴로괴야
 신선(神仙)이 엇더턴지 이 몸이야 괴로고야
 강산풍월(江山風月) 거늘리고 내 백년(百年)을 다 누리면
 약양루상(岳陽樓上)의 이태백(李太白)이 사라 오다
 ㉡ 호탕정회(浩蕩情懷)야 이에서 더호소나
 이 몸이 이령금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

- 송순, 「면양정가」 -

(나)

㉢ 연하(煙霞)의 김피 든 병(病) 약(藥)이 효험(效驗) 업서
 강호(江湖)에 바리연다* 십년(十年) 맞기 되어세라
 그러나 이제 다 못 죽음도 괴 성은(聖恩)인가 호노라
 <제3수>
 들 붉고 바람 자니 물결이 비단 일다
 단정(短艇)*을 빗기 노하 오락가락 호난 흥(興)을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 알가 호노라
 <제5수>
 식록(食祿)을 굶친 후(後)로 어조(漁釣)을 생애(生涯)호니
 험 업슨 아히들은 괴롭다 호건마는
 두어라 강호한적(江湖閑適)이 내 분(分)인가 호노라
 <제9수>
 - 나위소, 「강호구가」 -
 *바리연다: 버려진 지. *단정: 자그마한 배.

(다)

나는 때때로 산수를 찾아 노니는 사람이나 떠돌아다니는 승려
 들을 만나 자연의 신비함에 대해 말하는 것을 특히 좋아한다.
 가끔 그들과 토론을 하면 입에 침이 마르도록 떠들어댄다. 세
 상 사람들은 나의 이런 고집스런 취미를 비웃었다. 그런데 지
 금 나이가 많아 다리에 힘이 없어지니 어쩔 도리가 없다.
 나는 부득이 편하게 노닐 수 있는 방법으로 고금에 이름난 화

가들이 그린 산수화를 모아 벽에 걸어놓고 감상을 하였다. 그
 러나 이것은 비록 조금은 위로가 되지만 역시 화가들의 훌륭한
 기법과 특이한 풍경 외에는 별로 느껴지는 것이 없었다. 벽
 에 걸린 그림으로는 진실에 가깝게 생동하는 맛은 찾아볼 수
 가 없는 것이다. 그래서 늘 마음이 허전하였다.

[A] 나는 종남(終南)에 별장을 하나 가지고 있다. 별장의 남쪽
 담 밖의 돌 틈에 우물이 솟아올랐는데 물맛이 좋고 차가웠
 다. 나는 대청 앞에 못을 파서 그 물을 가둔 뒤에 연못을
 심고 연못 가운데에 괴이하게 생긴 돌을 쌓아서 산 모양을
 만들었다. 다시 그 돌 틈 사이사이에 소나무, 회양목 등 작
 은 놨만 골라 심었다.

그런데 담 밖에서 우물이 솟아나는 곳은 땅보다 석 자가
 더 높은 곳이어서 그 물을 대통으로 끌어다가 땅에 묻어
 내가 만든 돌산 가운데로 솟아 나오게 하였다. 그러자 물
 이 폭포를 이루며 두 개의 계단을 흘러내렸다. 사람들은
 담장 밖에서 끌어들이는 물인 줄도 모르고 물이 돌산 위에서
 평평 솟아나는 것을 보며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

산을 좋아했던 옛사람들 중에도 돌로 만든 가짜 산을 만든 이
 가 많았고 또 거기에 폭포를 끌어들이는 이도 더러 있었는데, 집
 의 뒤쪽이나 옆에 있는 높은 산을 이용하여 산골짜기에서 흐
 르는 물을 끌어들이는 경우가 많았다.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
 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
 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 ㉣ 작지만 큰 산을 본
 뚫고 남이 하기 어려운 일이지만 손쉽게 만들었다.

이 연못은 겨우 너비가 두어 장(丈)이고 깊이도 두어 자밖에
 안 되며, 산 높이는 다섯 자이고 둘레는 일곱 자이며, 폭포의
 높이는 두 자인데 나무들의 크기는 서너 치쯤 되어 마치 높은
 산을 축소하여 만든 것 같았다. 산골짜기는 그윽하고 폭포가
 두어 장 되는 연못을 깊은 바다로 알고 떨어진다. ㉤ 이 축소
 된 자연의 경치는 아무리 산수화에 뛰어난 저 당나라의 정진
 이나 왕유 같은 이도 다 그리지 못할 것 같았다.

생각해 보면 어느 것이 가짜이고 어느 것이 진짜인지 구분하
 지 못하겠다. 필경 천지와 사람이 모두 임시로 합친 것인데 무
 엇 때문에 진가(眞假)를 논하겠는가? 다만 내가 좋아하는 것
 만 취하면 그만인 것이다. 게다가 이 세상 만물은 입맛에는 맞
 지만 눈으로 보는 데는 맞지 않는 것이 있고, 보기는 좋는데
 듣기는 싫은 것이 있다.

[B] 그런데 이곳의 물은 차고 맛있기 때문에 우리 집안과 이웃
 들이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고 할 것이고, 괴이
 한 돌과 소나무, 잣나무 사이로 흘러서 두어 자의 절벽 밑
 으로 떨어지며 맑은 기운이 푸른 산봉우리에 비쳐 밤낮 없
 이 바라보아도 싫증 나지 않으니 노는 데에도 즐거움을 준
 다고 할 수 있다. 또한 고요한 밤에 잠이 오지 않을 때, 베
 개를 베고 누워 있으면 쇠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나는 가난하고 벼슬도 한미하여 좋은 진주나 보배, 아름다운
 것들로 눈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고, 기름진 음식으로 입맛을
 즐겁게 하는 것도 없으며, 관현악기 같은 악기의 소리으로써 귀
 를 즐겁게 하는 것도 없다. 그러나 다만 이 샘물로 이 세 가지
 의 즐거움을 맛볼 수 있으니 진실로 담박하면서도 멋이 있다.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

- 채수, 「석가산폭포기」 -

1. (가)~(다)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가)와 (나)는 음보를 규칙적으로 사용하여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 ② (가)와 (다)는 청각적 심상을 활용하여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③ (나)와 (다)는 비유적 표현을 통해 주관적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 ④ (가)~(다) 모두 다른 대상과 비교하는 방식으로 의미를 강조하고 있다.
- ⑤ (가)~(다) 모두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며 심리의 변화를 드러내고 있다.

2. <보기 1>의 선생님의 질문에 대한 대답으로 적절한 내용만을 <보기 2>에서 있는 대로 고른 것은? [3점]

< 보기 1 >

선생님: (가)와 (나)는 벼슬에서 물러난 작가들이 귀향한 후의 삶을 표현한 작품으로,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을 보여 주고 있어요. 두 작품을 살펴보면 공통점을 찾을 수 있는데, 무엇인지 확인해 볼까요?

< 보기 2 >

ㄱ.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가 드러나 있습니다.
 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ㄷ. 자연에서 느끼는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이 드러나 있습니다.
 ㄹ. 궁핍한 생활상을 보여 주면서도 그것을 수용하는 자세가 드러나 있습니다.

- ① ㄱ, ㄴ
- ② ㄴ, ㄷ
- ③ ㄴ, ㄹ
- ④ ㄱ, ㄴ, ㄹ
- ⑤ ㄱ, ㄷ, ㄹ

3. ㉠ ~ ㉢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주변에 즐길 것이 많다고 인식하고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 ② ㉡: 자신의 풍류 생활에 대한 자부심이 나타나고 있다.
- ③ ㉢: 자연에 대한 깊은 애정이 드러나고 있다.
- ④ ㉣: 옛사람들과 동일한 방식으로 석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보람이 나타나고 있다.
- ⑤ ㉤: 자신이 만든 석가산과 폭포에 대한 만족감이 드러나고 있다.

4. <보기>를 참고하여 (다)를 감상할 때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조선 시대 사대부들은 요산요수(樂山樂水)를 통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하며 심성을 수양하는 것을 이상으로 생각하였다. 그런데 아름다운 경치를 직접 찾기 어려운 사정이 있을 때에는 자기 집 정원에 산을 본뜬 조형물인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는 경우가 있었다. 이것은 하늘이 만들었던 사람이 만들었던 간에 본질은 같기 때문에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다. 이를 통해 사대부들은 석가산을 완상하면 산의 진경(眞景)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있고, 삶에 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 ① 글쓴이는 노쇠하여 산과 물을 직접 찾기 어렵게 되자 별장의 정원에 석가산을 만들어 완상하고 있군.
- ② 글쓴이는 요산요수를 위해 연못의 한가운데 석가산을 만들어 심미적 가치를 추구한 것으로 볼 수 있군.
- ③ 글쓴이는 산수화를 모아 감상하는 것만으로는 산의 진경을 찾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느낄 수 없다고 생각하고 있군.
- ④ 글쓴이가 진가를 논하지 않고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취하겠다고 강조한 것은 진가의 분별이 무의미하다는 인식과 관련이 있군.
- ⑤ 글쓴이가 석가산의 샘플에서 비롯된 세 가지 즐거움을 언급한 것은 석가산을 만드는 과정에서 느낀 고층과 깨달음을 통해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이라 할 수 있군.

5. [A]와 [B]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나’는 [A]에서 발생한 내적 갈등을 [B]에서 해소하고 있다.
- ② ‘나’는 [A]에서 한 행위로 인해 [B]에서와 같은 즐거움을 얻게 되었다.
- ③ [A]의 ‘계단’은 관념적 소재에, [B]의 ‘절벽’은 실제적 소재에 해당한다.
- ④ [A]의 ‘사람들’은 ‘물’을 긍정적으로, [B]의 ‘이웃들’은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 ⑤ [A]에서는 ‘물’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는 과정을, [B]에서는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을 제시하고 있다.

[6 ~ 9] 다음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무거운 침묵이 흐르는 가운데 문 앞의 감찰 완장들 중 한 명이 앞으로 한 걸음 내달리며 통명스럽게 내뱉었다. 딱 십분을 주셨으니 잘 생각들 해서 정하우다. 뒷집에서 풀러나 친철히 입으로 올라가는 손가락 사이에는 태를 먹어 금방이라도 산산이 부서져 내릴 듯한 허연 호루라기가 들려 있었다. **양갈지계 불어제치는 호각 소리**에 모두들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처음엔 이것이 무슨 꿈꿨이속인가 싶어 숨들을 죽이고 있었는데 한 오 분쯤 지나자 몇 사람이 후다닥 양쪽으로 오고 갔다. 그러자 서로 기다렸다는 듯 이쪽저쪽으로 **뒤죽박죽** 오가는데 정신을 차릴 수 없었다.

아버지가 처음 앉았던 자리는 북으로 가는 자리였다. 머릿속이 뿔뿔이 뿔뿔이 비어 버려 망창히 앉아 있던 아버지에게는 창문으로 쏟아져 들어오는 햇살이 그저 너무 좋다는 생각만 한심하게 다가왔다. 고개를 돌려 보니 수용소 안에서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모두 이남 자리로 넘어가서는 아버지보고 그쪽에 남으면 죽으니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쳤다. 갑자기 겁이 더러 올라붙은 아버지는 **시적시적** 이남 자리로 옮겨 갔다. 그러나 개인적 안위를 걱정할 때가 아니라라는 생각이 스쳤다. 잔빠가 굵은 고향이 있었고 거기에 살고 있을 **부모처자** - 아버지는 이미 전쟁 전에 장가를 들었다 - 모습이 눈앞에 밟혔던 것이다. 그래서 이번에는 후들거리는 다리를 끌고 이북 자리로 넘어갔다. 그러나 자리에 앉고 보니 불현듯 물밑 쪽 같은 신세 이제 고향에 돌아가면 될 하겠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뭐가 뭔지 알 수가 없었다.

그만 하는 소리와 함께 호각이 뿔 울렸다. 아버지는 둔기로 뒷머리를 얻어맞은 사람처럼 온몸이 굳어져 왔다. 저 북도는 이미 단순한 북도가 아니라 삼팔선 바로 그것이었다. 아 이를 어쩐단 말이나. 그때 아버지는 자신의 두 눈을 의심했다. 차오르는 숨을 가누지 못해 고개를 쳐든 아버지의 눈동자에는 퀘셋 들보 위를 **살금살금** 걸어가는 희끄무레한 물체가 들어왔다. 폭동의 와중에서 우연히 아버지를 깨우는 바람에 목숨을 건지게 해 준 그 흰귀가 꼬랑지를 **살랑살랑** 흔들며 이남 쪽으로 걸음을 떼고 있었다. 아버지의 눈에 힘이 들어갔다. 북도 사이로는 감찰 완장들이 **저벅저벅** 걸어 들어오는 판국이였다. 아버지는 얼른 북도로 내려섰다. 너무 서두르는 통에 발목을 접질려 비틀거리자 지나가던 감찰 완장 하나가 이놈이 하며 엉덩이를 걷어찼다.

내이가 왜 그랬겠니?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 어딜 간들 하는 생각 때문에 도루 못 가갔드란 말이야. 기거이 바로 사람이야. 웬 쥐였냐고? 글썽 모르지. 기러다

보니 멍탕 헛것이 눈에 끼었는지두. 언젠가 돌아가겠지 하며 살다 보니..... 암만 생각해 봐두 꿈 같기두 하구..... 기리고 이젠 모르겠어..... 정짜루다 돌아가구 싶은 겐지 그럴 맘이 없는 겐지..... 늙으니까니 암만해두.

깃물러진 눈자위를 손가락으로 지그시 누르고 있는 아버지의 어깨가 가늘게 떨렸다. 민홍은 뱃속에서 **울컥하는** 감정 덩어리가 솟구침을 느꼈다. 비껴 앉은 **아버지의 야원 잔등**을 보면서 민홍은 박물관에서 본 적이 있는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렸다. 그 화석에 대한 일차적 기억은 앙상함이었었고 그리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였다. 그 누구도 자유롭지 못한.

<중략 부분의 즐거리> 대학생인 민홍은 시위에 참여했다가 화상을 입고 한 달간 병원 신세를 진 후 집으로 돌아온다. 아버지는 세상을 떠나고, 민홍은 어머니인 철원네로부터 쥐를 잡으라는 성화를 듣는다.

민홍은 철원네가 열고 나간 가게문을 닫기 위해 무심코 한 발을 방문턱에 올리는 순간 흠칫 몸이 굳어졌다. **④ 그놈**, 바로 철원네가 입버릇처럼 너던 그놈이 아주 느릿느릿한 동작으로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었다.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했다.

- 예유, 어찌 된 애가 응, 기름병을 들고 불구멍이 속으로까지 뛰어들었다는 애가 그래 그깟 쥐 한 마리를 못 잡는대서야 말이 되니? 기가 맥혀서. 이젠 그놈이 새끼까지 치고 아예 놀러 앉으려는지 배가 이리 불룩하고 이만하게 늙은 놈이 등허리는 비루가 먹었는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민홍은 입을 조금 벌렸다. 기름병을 들고 불구멍이 속으로 뛰어 들었다는 애가. 정수리 끝까지 뻗쳐오른 기운 때문에 미세한 오한에 휩싸였다. 녀석은 민홍을 슬쩍 쳐다보았으나 느린 동작에는 변함이 없었다.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 녀석에게서 눈길을 떼지 않은 채 손을 가만히 내려 냉장고 옆에 세워 둔 연탄집게를 들어 올렸다. 이거면 족하다. 민홍은 손아귀에 힘을 주었다. 사정거리권 안으로 다가는 민홍의 손아귀에서는 쥔 득한 맘이 배어 나왔다. 녀석이 버거운 뱃구레를 추스르며 문턱에 오르는 순간을 일격의 시기로 잡았다. 그래 서두를 건 없어. 민홍은 손아귀에서 힘을 빼고는 일부러 탄 테를 쳐다보는 여유를 부렸다.

“그래 죽여라 죽여. 이려고 더 살면 뭐 하니? 너 죽고 나 죽자.”

민홍의 눈이 빛나는 순간이었다.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여!

민홍은 낮은 신음을 흘리며 황급히 뒤쫓아 나갔지만 허사였다. 녀석의 굵은 동작은 괜히 상대방을 자만하게 만들기 위한 위장술이 틀림없어 보였다. 그것은 등허리의 털이 벗겨질 만큼 오랫동안 목숨을 부지하면서 터득한 경험과 새끼를 뺨 암컷의 빈틈없고 대담한 산술이었으리라. 녀석은 문턱에 오르려는가 싶더니 어느새 다람쥐보다 더 민첩한 동작으로 사라지고 말았다. 민홍이 맨발로 뛰쳐나갔을 때는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빨려 들어가는 꼬리만 실컷 눈에 들어왔을 뿐이었다. 민홍은 그 자리에 망부석처럼 우두망찰 서서 소리 없이 웃고 있는 어둠 속을 노려보았다.

- 모르지 멍탕 헛것이 눈에 보였는지두.

아버지의 늘정한 목소리가 귓전에 와 달라붙었다. 민홍은 찬찬히 고개를 가로저었다. 골목 저편에서 비닐봉지와 함께 다가온 바람이 이마 위로 흘러내린 머리칼을 달싹이고 갔다. 민홍은 입을 굳게 다물어 보았다. 그냥 그렇게 서 있고 싶었다. 볼근

귀여운 주먹에는 연탄집게가 알맞춤하게 들어 있었다. 웬지 느껴온 감정이 밀려오면서 저만치서 채 시작되지도 않은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했다. 그쪽은 맨발이었다.

- 김소진, 「쥐잡기」 -

6. 윗글의 서술상 특징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서술자가 사건을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하고 있다.
- ② 동시에 일어난 사건들을 나란히 배치하여 이야기의 흐름을 지연시키고 있다.
- ③ 서술자가 사건을 전개하며 그와 관련된 인물들의 내면 의식을 제시하고 있다.
- ④ 인물의 표정 변화와 내면 변화를 반대로 서술하여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하고 있다.
- ⑤ 서술자가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함으로써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

7. <보기>를 참고하여 윗글을 감상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보 기 >

이 작품에서 전쟁 포로였던 아버지는 북에 있는 가족을 외면하고 남한을 선택했다. 그 선택은 이념적 당위를 앞세운 것이라기보다는 전쟁의 상황에서 가해진 폭력 앞에서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 내린 어쩔 수 없는 것이었다. 결국 아버지에게 그 선택은 평생 상처로 작용한다. 민홍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의 이면을 인식하게 됨으로써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게 된다.

- ① 감찰 완장의 '앙칼지게 붙어제치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삶의 방향을 결정하라고 강요했던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되는 것이겠군.
- ②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까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부모처자'를 위해 남한을 선택했던 자신의 결정을 합리화한 것이겠군.
- ③ '짓물러진 눈자위'를 누르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끼는 것은, 그가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고 있음을 보여 주는 것이겠군.
- ④ 민홍이 보게 된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무능하고 나약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겠군.
-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고생대의 한 화석'을 떠올린 것은, 아버지가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평생 전쟁의 상처에 갇힌 채로 살아왔음을 의미하는 것이겠군.

8. ㉠와 관련하여 윗글을 이해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민홍'은 ㉠와 관련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다.
- ②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를 발견하고 긴장하고 있다.
- ③ '민홍'은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를 잡는 일에 집중하고 있다.
- ④ '민홍'은 ㉠가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소리 없이 웃으며 ㉠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
- ⑤ '민홍'은 ㉠를 놓친 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하며 자신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 탄식하고 있다.

9. [A]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뒤죽박죽'은 여럿이 마구 뒤섞여 엉망인 상태를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당면한 혼란스러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다.
- ② '시적시적'은 힘들이지 아니하고 느릿느릿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본인의 의지보다는 사람들의 성화로 인해 이동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 ③ '살금살금'은 남이 알아차리지 못하도록 눈치를 살피며 살며시 행동하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리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을 암시하고 있다.
- ④ '살랑살랑'은 꼬리를 가볍게 자꾸 흔드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선택의 기로에서 갈등하고 있는 아버지의 마음이 한쪽으로 이끌리게 됨을 암시하고 있다.
- ⑤ '저벅저벅'은 발을 크고 묵직하게 내딛으며 잇따라 걷는 소리 또는 모양을 의미하는 말로, 아버지가 느낀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10~12]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이화가 겨우 정신을 차려 소리를 높여 말하기를,
 “모든 군사는 창검을 뽑아서 저 요괴를 잡으라.”

연이어 채촉하니 군민이 겨우 정신을 차려 일시에 고향을 지르고 나무를 베니, 요괴 둘이 땅에 떨어지니 길이가 한 발이나 되는 금빛 같은 여우였다.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하기를,
 “이런 요괴가 **육중**에 있어 종전에 커다란 변란이 있사옵더니, 성주의 명감신기(明鑑神奇)가 이와 같사오시니 이제는 태평을 누리올지라. 어찌 알았으리오? 천신이 강림하여 여러 원님의 원수를 갚으셨도다.”

하였다. 문득 보고하기를
 “죽은 여우가 솟여우뿐입니다.”

하였다.

이화가 실성할 정도로 크게 놀라서 돌아와 이여백에게 말하기를,
 “그대의 지휘로 인하여 여우를 잡았으나 암여우를 잃었으니 장차 어찌하리오?”

이여백이 매우 놀라서 말하기를,
 “당초에 너에게 하나를 잃으면 커다란 환란이 있으리라 하였는데, 암여우를 잡지 못하였으니 나는 아무 곳으로든 피하려니와 너는 3년 내에 대국에 가서 죽으리라.”

하고 하직하고 없어졌다. 아무리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니, 이화가 서늘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여 밤이면 심히 불안하여 취한 사람처럼 바보처럼 지냈다.

<중략>

이화가 나라를 하직하고 발행하여 3일이 되어 **중원**에 이르러 홀로 잠을 이루지 못하였다. 문에 기대어 슬픈 생각을 진정하지 못하고 탄식하고 오열하며 하늘을 우러러 기원하는데, 갑자기 공중에서 이화를 불러 안부를 물었다. 이화가 놀라고 의혹스러워하며 대답하기를,
 “캄캄한 밤에 누가 나를 은근히 불러 묻느냐?”

공중에서 대답하기를,
 “나는 이여백이니 네게 이런 일이 있을 줄 먼저 헤아린 바이라. 참혹하여 오지 않을 수 없음이로다.”

이화가 반갑고 기뻐서 대답하기를,
 “오늘 밤에 찾아온 것은 진정 너의 뜻이라. 살아서나 죽어서나 신의가 있음을 알 만하다. 과연 그대의 영혼이 이와 같음을 믿지만 나는 장차 어찌해야겠느냐?”

이여백이 위로하기를,
 “내가 차차 너의 살아날 길을 이르고자 함이니 근심을 그치고 자세히 들으라.”

이화가 감사함을 이기지 못하는데, 이여백이 말하기를,
 “내일 발행한 지 반나절이 못되어 비가 와서 여차여차한 집에 들어가면 보라매가 있을 것이니 값을 헤아리지 말고 사 가지고 가라. 대국에 이르러서는 황제가 반드시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할 것이나 죽기를 걱정하고 옷을 벗지 말고 그 매를 소매 속에 넣고 궁궐에 들어가 매를 내 놓으면 그대가 살 계교가 죽히 될 것이요 공명도 얻을까 하노라.”

이화가 매우 기뻐하며 소리 죽여 말하기를,
 “바라지도 않았는데 나라 바깥에까지 이르러 은근히 살 길을 두 번씩이나 가르쳐 주니 은혜가 진실로 ㉠ (이)라.”

하고, 다른 세상에서 은혜 갚기를 기약하고 서로 이별하였다.

명일에 길을 떠나 반나절이 못되어 과연 벼락이 치며

비가 심하게 내렸다. 이화가 하늘을 우러러 감사해 하며 말하기를,
 “이여백의 점치는 제주가 이와 같이 신기하다.”

하고 마을을 찾으니 과연 이여백이 이르던 집이 있었다. 이화가 기뻐하며 그 집에 들어가 주인에게 불을 구하여 옷을 말려 입고, 두루 살펴보니 조그만 **보라매**가 있었다. 이화가 사기로 걱정하고 크게 기뻐하며 주인을 청하여 물기를,
 “저 매가 주인의 것이냐?”

주인이 대답하기를,
 “우리에게 3대째 내려오나니, 저 매가 사냥을 잘하여 매일 십여 마리를 잡으니 저 매로 평생 생계를 하매 귀하게 여기나이다.”

이화가 말하기를,
 “내가 젊어서부터 매를 좋아하였는데, 이 매를 보니 평생 원하던 바이라. 값을 깎지 않을 것이니 내게 팔라.”

주인이 대답하기를,
 “이것을 팔면 생계가 끊어질 것이니 팔지 못하겠소이다.”

이화가 은자 천 냥을 주며 말하기를,
 “팔기가 비록 어렵겠지만 내가 꼭 사 가고자 하노라. 객중의 수회(愁懷)를 위로하고 본국에 돌아갈 때 다시 돌려 달라 한들 무엇이 어려우리오?”

주인이 그 간절함을 보고 감동하여 파니, 이화가 매우 기뻐하며 그 매를 가지고 중원에 이르러 황제께 바치기를 아뢰었다.

귀비가 옆에 모시고 앉았다가 고하기를,
 “조선 복색을 다 벗고 들어오라 하소서.”

상이 옷을 벗고 들어오라 하시니, 사관이 나아가 옷을 벗고 들라는 황제의 명을 일렀다.

이화가 눈을 부라리고 꾸짖기를,
 “나는 조선 예의국(禮儀國) 사람이라. 조그만 존전(尊前)에도 옷을 벗고 뵈는 일이 없거늘 하물며 황제 만승지전(萬乘之前)에 옷을 벗고 뵈는 도리가 있으리오?”

사관을 물리치고 점점 나아오니 귀비가 겁을 내어 말하기를,
 “이화가 저렇듯이 황명을 거역하니 지난날 꿈속의 일을 생각 사오면 어찌 흉악하지 아니하리이까? 빨리 장사를 시켜 옷을 벗기고 죄를 물으소서.”

황제가 그 말을 좇아 장사로 하여금 들어오는 문을 막고 옷을 벗겨 잡아들이라 하시니, 장사가 일시에 문을 닫고 옷을 벗기려 하였다. 이화가 큰 소리로 말하기를,
 “비록 황상의 명령이 있으나 죽을지언정 옷은 벗지 못하리라.”

하고 손으로 모든 장사를 밀치고 정전에 들어갔다.

정전에 들어가니 황제가 귀비와 함께 앉아 계시거늘, 이화가 황상께 여덟 번 절하고 머리를 숙인 후 문득 소매에서 매를 내놓았다. 매가 바로 귀비의 머리에 날아가 앉아 백호와 두 눈을 쪼아 먹으니 귀비가 변하여 황금 같은 여우가 되었다. 황제가 대경실색하여 좌우에 있는 사람으로 하여금 여우를 끌어내라 하고 겨우 정신을 진정하여 이화를 나아오라 하고 손을 잡고 연고를 물으셨다.

이화가 전후사연을 자세히 주달하니, 황제가 차탄(嗟歎)하고 상심하여 참담해 하셨다. 황제는 귀비가 여우에게 죽은 것을 슬퍼하여 여우의 주검을 조각내어 귀비의 신위(神位)를 위하여 제문 지어 제하셨다. 그리고 좌우를 돌아보아 가라사대,

“이화의 신기한 도술이 아니었던들 거의 종묘사직을 보전하지 못하고 천하 강산이 다른 사람에게 돌아감을 면하지 못할 뻔 하였도다.”
 - 작자미상, 「이화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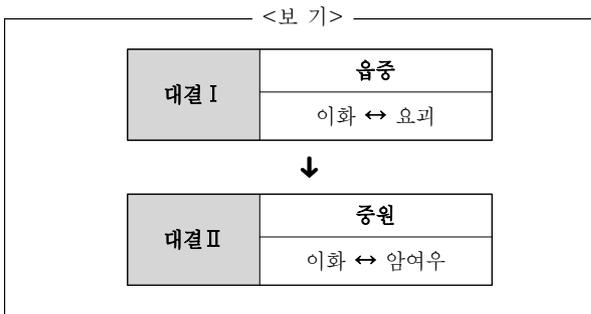
10. 위 글을 통해 알 수 있는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이화’는 ‘군민’을 지휘하여 ‘요괴’를 잡도록 했다.
- ② ‘주인’은 마음을 바꾸어 ‘이화’에게 보라매를 팔았다.
- ③ ‘이여백’은 ‘이화’의 처지가 측은하여 살 길을 알려 주었다.
- ④ ‘황제’는 ‘이화’에게 사연을 듣고 그의 공을 높이 평가하였다.
- ⑤ ‘군민’은 ‘요괴’의 정체를 알려준 ‘이여백’에게 고마움을 표했다.

12. **보라매**에 대한 이해로 가장 적절한 것은?

- ① 사건 해결에 결정적 역할을 한다.
- ② 세태의 변화를 보여주는 기능을 한다.
- ③ 인물을 강하게 단련시키는 역할을 한다.
- ④ 과거의 사건을 회상하게 하는 기능을 한다.
- ⑤ 사건의 전후 관계를 설명하는 역할을 한다.

11. 위 글의 대결 구도를 <보기>와 같이 정리할 때, 이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대결 I, II에서 이화는 동일한 조력자의 도움을 받는다.
- ② 대결 I의 결과로 인해 대결II가 예측된다.
- ③ 대결 I의 요괴와 달리 대결II의 암여우는 권력자를 이용한다.
- ④ 대결 I에서 불완전한 승리를 거둔 이화는 대결II에서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 ⑤ 대결II의 중원에서와 달리 대결 I의 읍중에서는 비현실적인 사건이 일어난다.

[13~15] 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십시오.

상상 이거 좀 드세요. 맛이 희한한데... 고수워요.
현철 뭐야 이게?
사람들 팝... 콘이지요.....
상상 옥수수를 처음 따왔어요...... 옥수수잎을 그렇게 다 듣는 거... 줄기를 그렇게 여며 보관해서... 겨울을 난다는 거... 몰랐어요. 옥수수도 알이 알차요. 그거 그렇게 따 본 것도 처음이지요.
현철 문상상... 무슨 소리하는 거야?
상상 처음엔 조금 무서웠는데 인민군하고 한 땅덩이 안에서 같은 일을 해 본 것도 처음이구요.....
현철 문상상.....
상상 며칠만 더 해주면 여기 사람들 가을걷이는 다 해 줄 수 있을 거예요. 우리... 어차피 갈 곳도 없잖아요.....
현철 문상상.
촌장 그게 무슨 얘긴가 지금.....
상상 산 아래로 내려가도 어차피 아무 데도 못 가잖아요.....
현철 이놈의 새끼!!!!
 현철, 상상을 두들겨 팬다. 그걸 치성이 말리고... 현철을 놓인다. 현철, 바닥에 있는 호미를 잡는다.
현철 그래, 다 죽여 버리겠어.....
치성 후후... 그래... 뭐이 좀 의심했지...... 적이 많구만... 동무, 사연은 모르겠지만 등 돌린 곳이 많아.....
현철 더러운 빨갱이 새끼.....
치성 남조선 장교 치곤 입이 걸구만...... 처음부터 그래 봤어. 비행기에서 추락한 미군 장교를 왜 안 데리고 갈까? 응? 이 아이 데려가면 훈장감인데 말이지? 또 말해줄까? 명청한 소위 동무... 대열 찾아가는 군인은 절대로 산 위로 안 올라오지...... 우리 같이 쫓기는 놈들이 아닌 이상... 산 위에 있는 본대는 없다...... 군사학 안 배웠네... 기본이야 그거이.....
현철 ㉠ 시끄러워... 빨갱이 새끼.....
 현철, 달려든다. 치성, 그를 제압하며 놓인다. 그리고는 목을 조아리다 결정타를 날리려는 순간...
작가에게 쏟아지는 불... 덩이... 무대 위의 상황은 정지된다.
 지금부터는 극이 설정한 이원의 공간이 무너지고 서사적 양식과 극장의 양식이 극을 움직인다.
작가 아버지... 여기까지 말씀을 해 주시고... 그만... 돌아가셨습니다. 이 이후의 얘긴 제가 만들어 낸 것이죠. 이 **사진**의 모습만을 생각하며 그려 보는 저의 상상이죠.
무대가 통합된다.
촌장 (갑자기) 멈추시오!!!!
 치성이 멈춘다. 작가를 포함한 모두가 촌장을 본다.
촌장 뭐가 좀 이상합니까? 선생님.....
작가 (관객을 보고) 제가 만들어 낸 인물이니 저와 얘길 나눌 수도 있지요. (촌장을 다시 보곤) 아니 뭐 꼭 이상하다고 보단.....
촌장 여하튼 싸움을 말리긴 말려야 되는 거 아닌가요?
달수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혼자 다 하시려고 그러세요?
촌장 니가 말릴래? 응식이야 말릴래? 아무래도 나이 많은 내가 이걸 말리는 게 순리 아니겠니?

노모 그렇게 따지면... 판 정리는... 응.....?
촌장 어머니... 어머니는 지금... 정신이 오락가락 하시는 데... 또 난 촌장 아닙니까?
마님 ㉡ 자꾸 촌장, 촌장 하시는데... 이거 뭐 투표해서 뽑은 촌장도 아니고... 당신 아버지가 벼슬자리 좀 있었다고... 어거지로 물려받은 자리 가지고... 너무 힘주시네...... 그리고 작가 선생님, 말이 나왔으니 하는 얘긴데... 중요한 대목은 왜 꼭 남자가 합니까?
촌장 ㉢ 허허... 생각을 해 보시오. 지금 이 양반이 이렇게 살기 뻔친 눈으로 사람 하나를 죽이는데... 아녀자가 껍떡 된다고 눈 하나 깜짝 하겠소?
치성 근데요... 저 사실... 죽일 생각은 없거든요...... 그냥 겁만 줄려는 거니까... 제가 알아서 그냥... 뭐가 딱 하는 방법이 없을까요?
작가 뭐가를 딱 하다니요?
치성 그러니까 작가 선생 의도대로 그 사진의 풍경만 만들면 되는 거 아니요?
작가 그거야... 그렇지만.
치성 ㉣ 그러면 내가 딱 이렇게 내려치려다가... 이렇게 말하는 거지요. (연기한다.) 내려, 사실 죽일 생각은 없어...... 우리는 한민족 아니잖네? 사진이나 한 장 박자 우!
 사진 대열로 가려 한다.
작가 저기 원위치 하시고요...... 이렇게 막무가내로 하시면... 얘기가 좀 이상해지고요...... 진정들 하시고.....
동구 ㉤ 근데... 사실 이런 장면일수록 의외의 인물이 해결하는 것이 더 폼 나지 않을까 하네...... 어이, 나같이 어린 것이 이 순간을 감동과 놀라움으로 돌파하는 것이 더 쫄할 거 같은데... 생각 좀 해 봐.....
 모두... 동구를 이상한 듯 본다.
동구애, 내 아들이예요. 그잖아?
작가 근데... 아버지.....
 다들 수긍한다. 스미스가 작가에게 와서 뒤라 얘기를 한다. 작가, 한참 듣다가... 무반응으로.....
작가 아무튼... 긴장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것에 맞는 각자의 반응이 있거든요...... 제가 기술하는 대로 일단은 가 보시고... 그제 맘에 안 들면... 뭐 또 다시 쓰면 되는 거니까...... 여하튼 가장 중요한 건... 이 사진의 결과를 향해 이야기는 진행되어야 한다는 거죠.표현철 소위, 자리로 줌.....
 - 장진, 「웰컴 투 동막골」 -

13 <보기>의 ㉠~㉥ 중, [사진]에 대한 설명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보 기>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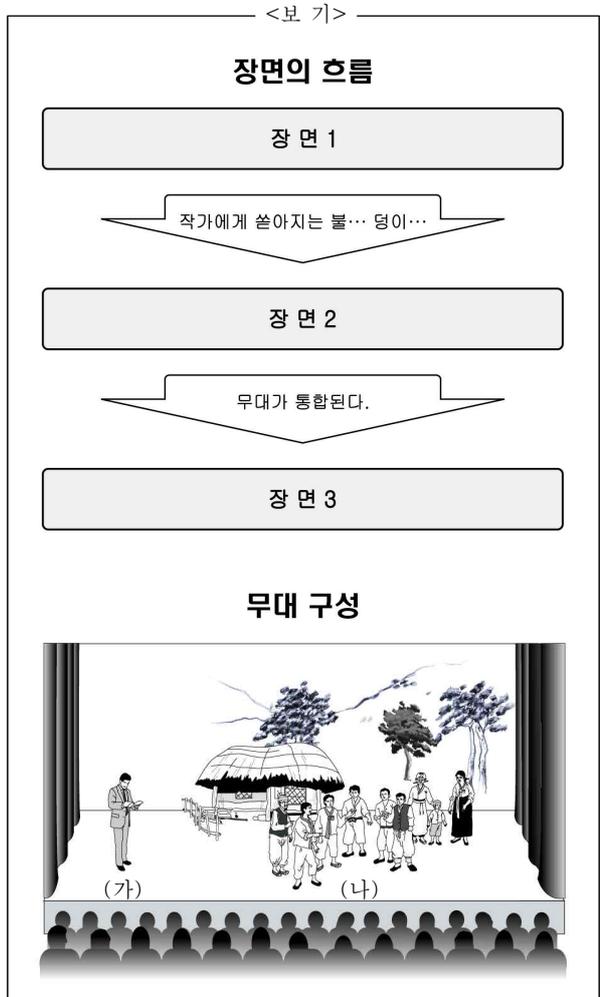
이 희곡에서 사진은 ㉠ '작가'의 아버지가 경험한 어린 시절의 한 순간을 포착하고 있으며 ㉡ 사진 속의 인물들과 '작가'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그리고 ㉢ '작가'가 이야기를 전개해 나가는 근거로 쓰이며 ㉣ 인물들을 통해 최종적으로 만들어 내하고자 하는 이야기의 결과물이 된다. 또 ㉤ 사진을 찍을 때까지 인물들이 보여줄 구체적 행동을 관객들이 파악할 수 있게 한다.

- ① ㉠ ② ㉡ ③ ㉢ ④ ㉣ ⑤ ㉤

14 ㉠~㉥에 대해 연기 지시를 할 때, 지시 사항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 ① ㉠: '치성'을 향해 공격할 자세를 취하며 격양된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 ② ㉡: '촌장'에게서 '작가'에게로 시선을 옮기며 불만스러운 어투를 유지하세요.
- ③ ㉢: 손가락으로 '치성'을 가리키면서 '마님'에게 답답하다는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 ④ ㉣: 어투에 변화를 주며 대사를 한 후 사진을 찍으려는 곳을 향해 주세요.
- ⑤ ㉤: 마을 사람들을 바라보며 어린 아이다운 느낌을 잘 살릴 수 있는 어투로 대사를 하세요.

15 위 글을 <보기>와 같이 나타냈을 때, 이에 대한 이해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3점]



- ① 장면 1: 관객들은 (가)와 (나)를 다른 공간으로 인식하겠군.
- ② 장면 2: (나)의 배우들은 일시적으로 행동을 멈추겠군.
- ③ 장면 2: 관객들은 (가)의 배우를 통해 '장면 1'과 '장면 3'의 차이점을 알 수 있겠군.
- ④ 장면 3: (나)의 배우들이 관객들과 대화할 때 (가)의 배우가 개입하겠군.
- ⑤ 장면 3: (가)와 (나)는 공간의 통합뿐 아니라 시간의 통합도 이루어지겠군.

빠른정답.

5	1	4	5	2
3	2	4	3	5
5	1	5	5	4

[1 ~ 5] (고전시가복합) (가) 송순, 「면양정가」 / (나) 나위소, 「강호가가」 /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가) 송순, 「면양정가」

조선 전기 사대부 가사로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에 돌아와 면양정을 지어 생활하는 모습을 그린 작품이다. 면양정 주변의 경치와 그에 따른 흥취를 적절하게 형상화하여 문학적인 가치가 높은 작품으로 평가 받는다. 자연 친화 사상과 유교적 충의 이념을 결합한 강호가도(江湖歌道)의 특성이 잘 드러나는 작품으로 볼 수 있다. 지문에 제시된 부분은 이 작품의 결사 부분으로 자연 속의 풍류 생활에 대한 만족감과 임금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드러내고 있다.

(나) 나위소, 「강호가가」

17세기의 문신인 나위소가 지은 총 9수의 연시조로 강호가도 계열에 해당하는 작품이다. 작가가 벼슬에서 물러나 고향의 자연을 즐기는 유유자적한 모습을 형상화하고 있다. 자연 속에서 아무 속박을 받지 않고 마음껏 즐기는 모습을 ‘강호한적’이라는 시어로 압축하여 드러내고 있다.

(다) 채수, 「석가산폭포기」

이 글은 작가가 인공으로 석가산과 폭포를 만들게 된 과정과 그것을 완성한 후 미각, 시각, 청각의 세 가지 즐거움을 누리는 자족감을 표현한 글이다. 노쇠하여 직접 자연(산수)을 찾지 못하게 된 작가는 종남의 별장에 석가산을 만들어 그것을 완상하며 실제 자연을 찾아 즐기는 것과 같은 즐거움을 맛보고 있다. 자연에 실재하는 산과 인공적으로 만든 석가산의 진가(眞假)를 구별하지 않는 인식을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즐기며 만족하는 우리 조상들의 고상한 풍취를 느낄 수 있다.

1. [출제의도] 표현상 특징을 비교하여 이해한다.

(가)~(다)에는 원경에서 근경으로 시선을 이동하는 상황이 나타나지 않는다.

[오답풀이] ① (가)와 (나)는 4음보 율격을 통해 리듬감을 형성하고 있다. ② (가)의 ‘온가짓 소리로 취흥(醉興)을 비야 거니(온갖 소리로 취흥을 재촉하니)’, ‘을프락 프람흐락(을었다가 휘파람을 불었다)’과 (다)의 ‘짜아 하고 쏟아지는 폭포 소리’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③ (나)에서는 자연을 사랑하는 마음을 ‘병’에 빗대고 있으며, ‘물결이 비단 일다(물결이 비단 같다)’와 같은 비유적 표현이 사용되고 있다. (다)에서는 ‘폭포 소리가 마치 요란한 관현악기 소리 같아서 귀를 즐겁게 한다.’ 등을 통해 비유적 표현을 확인할 수 있다. ④ (가)에서는 이태백과 자신을 비교하고 있고, (나)에서는 <제9수>에서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생활을 괴롭게 여기는 생각 없는 아이들과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생활을 ‘강호한적’으로 여기며 즐기는 화자를 비교하고 있다. (다)에서는 옛사람들

의 가짜 산 조성 방식과 자신의 조성 방식을, 세상의 호걸들의 태도와 자신의 태도를 비교하고 있다.

2. [출제의도] 작품 간의 공통점을 파악한다.

<보기 1>은 우리 문학사에 나타나는 시가의 특정한 경향인 강호가도(江湖歌道)를 언급한 것이다. (가)의 ‘이 몸이 이렇 굶도 역군은(亦君恩)이샷다’와 (나)의 ‘귀 성은(聖恩)인가 흐노라’에서 임금의 은혜를 떠올리며 감사하는 태도를 확인할 수 있다(ㄱ). (가)의 ‘인간(人間)을 쟈나 와도 내 몸이 겨를 업다’와 (나)의 ‘강호(江湖)에 바리연디 십년(十年) 맞기 되어세라(강호에서 생활한 지가 십 년이 넘게 되었구나.)’를 통해 속세와 거리를 두고 지내는 삶의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ㄴ).

[오답풀이] (가)의 ‘술리 너어거니 벗지라 업슬소나’에서 자연 속의 흥취를 타인과 나누려는 마음가짐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나)의 ‘백구(白鷗)야 하 즐겨 말고려 세상(世上)알가 흐노라’에서는 세상 사람들이 화자가 누리는 자연 속의 흥취를 알지 못하기를 바라는 심정이 나타나 있다(ㄷ). (가)에서는 궁핍한 생활상이 드러나지 않으며, (나)도 벼슬을 그만둔 후 고기 잡고 낚시질하는 한가한 생활상이 나타날 뿐 궁핍한 생활상이 구체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다(ㄹ).

3. [출제의도] 구절의 의미를 파악한다.

㉠ 앞부분의 ‘그러나 나처럼 연못의 한가운데 산을 만들고 사면이 물로 둘러싸인 곳에 물을 끌어들여 산 위에 폭포를 만든 사람은 없었다.’를 통해 ㉠은 옛사람과 다른 방식으로 가산을 만든 것에 대한 자부심을 표출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4.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바탕으로 작품을 감상한다.

이 글에서 글쓴이가 언급한 세 가지 즐거움은 석가산을 만든 후 이를 완상하는 과정에서 맛보는 것이다. 그리고 글쓴이가 석가산을 만들며 고충을 겪었다는 내용은 나타나지 않는다. 글의 마지막 문장에서 글쓴이가 ‘세상의 호걸들은 모두 나의 이 취미를 비웃지만 나는 이것을 좋아하여 이것으로써 저들이 좋아하는 것과 바꾸지 않겠다.’라고 말한 것은 글쓴이의 자부심을 드러낸 것이지, 자신을 비웃는 사람들을 설득하려는 것으로 볼 수 없다.

5.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이해한다.

‘나’는 [A]에서 석가산을 만들었고, 이를 통해 [B]에서 미각, 시각, 청각과 관련한 세 가지 즐거움을 얻고 있다.

[오답풀이] ① ‘나’는 [A]에서 내적 갈등을 보이지 않고 있다. ③ [A]의 ‘계단’과 [B]의 ‘절벽’은 모두 석가산 안에 조성된 실제적 소재이다. ④ [A]의 ‘놀랍고 신기함에 감탄하였다.’를 통해 ‘사람들이’ ‘물’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B]에서는 ‘이웃들이’ ‘물’을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내용이 나타나지 않는다. ‘아침저녁으로 마시니 입맛에 맞다’로 볼 때 오히려 긍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라고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⑤ [A]에 ‘물’을 집 안으로 끌

어들이는 과정은 나타나 있으나, [B]에서 ‘물’을 집 밖으로 흘려보내는 과정은 나타나지 않는다.

[6~9] (현대소설) 김소진, 「쥐잡기」

이 작품은 주인공인 민홍이 돌아가신 아버지를 회상하며 아버지의 생애를 재구성하고 있는 작품이다. 민홍은 ‘쥐잡기’의 행위를 통해, 작년에 동일한 행위에 매진하던 아버지의 초라한 모습을 회상하고 그 속에 감추어진 아버지의 정신적인 상처를 깨닫게 된다. 아버지는 전쟁 포로로서 남한을 선택한 대가로 평생 상처를 짊어지고 살아간다. 현실에서 경제적으로 무능한 아버지의 모습으로 표상되는 그의 전쟁 체험은 실은 개인의 몫이 아니라 시대의 몫일 수밖에 없다는 작가의 의식을 반영하고 있다. 아버지에 대한 반감을 가졌던 주인공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재구성하는 과정을 통해 그의 정신적 상처를 감지하고 아버지를 이해하는 데 다가서게 된다.

6. [출제의도] 작품의 서술상 특징을 파악한다.

<중략 부분의 줄거리> 앞부분에서는 아버지가 전쟁 포로로 남한과 북한 중 어느 한쪽을 선택하는 장면을 회상하고 있는데, 이는 아버지의 말을 아들인 민홍이 다시 떠올리는 장면이다. 아버지의 독백을 통해 그의 내면과 더불어 이를 마주한 민홍의 내면이 드러난다. 또한 <중략 부분의 줄거리> 뒷부분은 민홍이 잡으려는 쥐와 마주하는 장면으로, 쥐잡기의 행위를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며 자신의 내면 의식을 드러내고 있다.

[오답풀이] ① 작품 전체의 주된 서술자는 민홍으로, 이야기 속에서 전달하다가 이야기 밖에서 전달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아버지의 전쟁 체험에 관한 사건과 현재 민홍의 쥐잡기가 동시에 벌어진 사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④ 인물의 표정 변화나 내면의 변화가 반대로 서술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고, 이를 통해 그 인물의 특성을 부각한다고 볼 수 없다. ⑤ 서술자인 민홍이 관찰자의 입장에서 사건을 재구성한다고 볼 수 있으나, 사건을 객관적으로 전달해서 사실성을 높이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7. [출제의도] 외재적 준거를 통해 작품을 감상한다.

<보기>는 ‘호각 소리’에 따라 결정을 강요당하고 갈등하는 아버지의 모습을 통해, 전쟁이라는 상황 자체의 폭력성과 전쟁이 개인에게 상처로 작용함에 관한 내용이다. ‘여기 한번 나와 있으니깐니 못 가갔드란 말이야.’라는 아버지의 말은, 북한에 가족을 두고 왔지만 다시 돌아가지 못한 자신의 결정에 대한 상처로 볼 수 있다. ‘부모처자’는 북한에 있는 고향에 두고 온 가족을 의미하므로 남한을 선택한 것이 ‘부모처자’를 위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답풀이] ① 짧은 시간 안에 남한 행이든 북한 행이든 결정을 내리라는 ‘호각 소리’는 개인에게 작용하는 전쟁의 폭력성과 연결된다고 할 수 있다. ③ 눈물을 보이며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는 아버지를 마주한 민홍이 ‘울컥하는’ 감정을 느낀 것은, 그가 아버지의 슬픔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낸다고 볼 수 있다. ④ 민홍이 본 ‘아버지의 야윈 잔등’은 남한에서 나

약하고 소외된 모습으로 살아온 아버지의 삶과 연결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⑤ 민홍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면서 떠올린 ‘고생대의 한 화석’은 아버지가 전쟁의 상처를 평생 끌어안고 ‘가슴 답답한 세월의 무게’를 견디며 화석처럼 갇혀 살아왔음을 드러내고 있다.

8. [출제의도] 글의 내용을 세부적으로 이해한다.

①은 민홍이 마주한 쥐로, 어머니인 철원네가 자신에게 요구했던 ‘쥐잡기’ 행위의 대상이다. 민홍은 쥐를 잡으려다가 실패하고 ‘골목의 어둠 속으로 유유히’ 사라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데, 이어지는 장면에서 아버지의 말을 떠올리기도 하고 ‘입을 굳게 다물어’ 보며, ‘느껴온 감정’과 함께 ‘겨울의 출구가 보이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 이를 통해 ①이 ‘골목의 어둠 속으로 사라지자마자 ②에 대한 아버지의 말을 내뱉고 있다고 볼 수 없다.

[오답풀이] ① ‘에유, 어찌 된 애가~ 털이 훌쩍 벗겨져서는…….’ 부분에서 민홍이 철원네가 자신에게 한 말을 떠올리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② ‘가게 문턱을 향해 기어가고’ 있는 쥐를 발견한 민홍은 ‘철원네가 말한 용모파기와 일치’하는 쥐를 보며 긴장하고 있다. ③ 민홍은 쥐를 보며 ‘저 정도면 잡을 수 있다.’고 생각하며 ‘연탄집게를 들어올렸다. 이거면 족하다.’고 느끼고 집중하고 있다. ⑤ 민홍은 쥐를 놓치고 나서 ‘아아, 나의 어리석음이여!’라고 낮은 신음을 흘리고 있다.

9. [출제의도] 인물의 처지와 심리·태도를 이해한다.

‘살깃살깃’은 아버지의 눈에 들어온 ‘흰쥐’의 모습을 의미하는 말로, 가족을 걱정하는 마음을 들키고 싶지 않은 아버지의 바람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오답풀이] ① ‘뒤죽박죽’은 복도에서 사람들이 이쪽저쪽으로 오가는 혼란스러운 상황을 드러내고 있다. ② ‘시적시적’은 ‘머릿속이 뻥뻥그렁하게 비어’ 별 생각이 없던 아버지가 사람들이 ‘날래 넘어오라구’ 난리를 치자 별 의지 없이 이동하는 모습을 표현하고 있다. ④ ‘살랑살랑’은 ‘흰쥐가 꼬랑지’를 흔드는 모습으로, 아버지가 그것을 따라 남쪽으로 자리를 옮기게 되는 상황과 그 심리를 내포하고 있다. ⑤ ‘저벅저벅’은 ‘감찰 완장들’이 걸어 들어오는 상황을 드러낸 말로, 아버지가 느낀 위기감과 중압감을 드러내고 있다.

[10~12] (고전소설) 작자미상, ‘이화전’

개관: ‘이화전’은 전반부에서는 조선, 후반부에서는 중국을 배경으로 하여 이화가 요괴를 퇴치하는 전기 소설이다. 임진왜란 당시 구원병으로 왔던 명나라 장수 이여백의 혼이 요괴 퇴치를 도와주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임진왜란 당시 중국의 도움을 받은 것을 표현하고 있다. 그러나 이화가 중국으로 도망간 요괴를 퇴치하여 중국을 구하는 후반부를 통해 우리가 도움을 받지만 하는 수동적인 존재에 그치지 않고 중국을 도울 수도 있다는 민족적 자긍심을 드러내고 있다.

10. [출제의도] 작품의 내용 파악하기

첫 문단 ‘군민이 화살과 창검으로 그 짐승을 죽이고 정신을 차려 원에게 사례하기를’에서 군민은 이여백이 아니라 원님인 이화에게 고마움을 표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정답 ⑤

11. [출제의도] 작품의 사건 구조 파악하기

‘읍중’에서 일어난 대결 I 과 ‘중원’에서 일어난 대결 II를 비교해 보면 모두 요괴와 대적하고 있으므로 둘 다 비현실적이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① 대결 I, II 모두 이여백의 도움을 받는다. ④ 이화는 대결 I에서 솜여우는 잡았으나 암여우를 놓쳤으므로 불완전한 승리에 그쳤지만 대결 II에서는 보라매를 이용하여 암여우를 물리쳐 완전한 승리를 거둔다.

12. [출제의도] 소재의 기능 파악하기

이화가 어렵게 얻은 ‘보라매’는 중원에서 귀비로 변신한 암여우를 공격한다. 이 공격으로 암여우는 정체가 밝혀지고 죽임을 당한다. 그렇기 때문에 ‘보라매’는 이 소설의 갈등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한다고 할 수 있다. 정답 ①

[13 ~ 15] (극문학) 장진, ‘웰컴 투 동막골’

개관: 이 희곡은 시나리오로 각색되었던 ‘웰컴 투 동막골’의 원작이다. 1950년 6·25 전쟁을 배경으로 우연히 동막골이라는 산골 마을에 모이게 된 연합군 비행사와 국군 탈영병, 그리고 인민군들이 이념 대립의 문제를 해소해 나가는 과정을 보여준다. 아버지(동구)의 오래된 사진을 발견하게 된 ‘작가’가 아버지로부터 들은 이야기에 자신의 상상력을 더해 당시의 상황을 드러내 보여준다는 설정을 하여 서사극의 특징을 보여준다.

13. [출제의도] 소재의 특징 파악하기

‘작가’의 마지막 대사를 통해, 사진을 찍기 전까지의 극의 내용 전개 및 인물들의 구체적인 행동은 ‘작가’가 상상하여 기술하는 대로 이루어질 것임을 알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관객들은 사진을 찍을 때까지 인물들이 앞으로 어떤 구체적 행동을 취할지는 정확히 알 수 없다. 정답 ⑤

14. [출제의도] 구체적 상황에 적용하기

‘동구’가 ‘작가’에게 자신이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수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대목이다. 이 때 ‘동구’는 ‘작가’의 아버지라는 태도로 ‘작가’에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므로, 마을 사람들을 바라본다는 설정이나 어린아이다운 느낌이 드는 어투를 쓴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정답 ⑤

[오답풀이] ④ ‘치성’은 연기자의 입장에서 ‘작가’에게 이야기를 하다가 “(연기한다)”는 지문이 나오고 난 뒤 연기를 하는 듯한 말투를 쓰게 된다. 그 다음에는 본문에서 언급되는 내용대로 사진을 찍기 위한 쪽으로 향하게 된다.

15. [출제의도] 장면의 흐름 파악하기

(나)의 인물들은 ‘작가’와는 대화를 하고 있으나 관객과의 대화는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오히려 (가)의 ‘작가’와 관객 간의 대화가 나타날 뿐이다. 정답 ④

[오답풀이] ① 장면 2의 ‘이원의 공간’이란 말을 통해 장면 1에서 ‘작가’가 이미 (가)에 있었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공간 인식이 다르게 될 수 있다는 점 역시 짐작할 수 있다. ⑤ ‘작가’와 인물들 간의 대화가 이루어지는 장면 3은 장면 1에서 나뉘어 있던 공간의 통합이 이루어진 것이며, 동일한 시간 속에서 연기와 관계된 대화를 나누는 것이라 할 수 있다.